



연중 제17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가짜 인생 진짜 인생

묻힌 보물

옛날 중동지방에서는 민족들 간에 전쟁도 잦았고 때로는 홍수나 가뭄 같은 천재도 심해서 생활터전을 버리고 급히 피난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에 미처 운반할 수 없는 보물이나 살림 도구 등은 땅을 파서 감추어 두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찾겠다고 하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 사막이 대부분인 그 지역이 그동안 모래바람으로 지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디에 자기의 보물을 묻었는지 몰라 끝내 못 찾은 채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늘 복음은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느님 나라를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에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치도 발견하고 찾은 것으로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노고도 따른다.

진주 목걸이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다.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는 마틸드. 어느 날 친구인 프레스체 부인에게서 진주 목걸이를 빌려 치장을 하고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처분하고 모자라는 돈은 빚을 얻어 빌렸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사서 프레스체 부인에게 말없이 돌려줬다.

그 후 빚을 갚기 위해 십 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된다. 마틸드는 고생을 하는 동안 그 아름답던 얼굴은 비참하게 됐으며, 머리카락은 반백이 됐다. 마침내 빚을 다 갚았을 무렵 우연히 프레스체 부인을 만나게 되자 마틸드는 다소 자랑스레 그간의 일을 고백하게 된다. 얘기를 다 들은 프레스체 부인은 말한다.

“내게 돌려준 그 목걸이 값을 갚느라 십 년이나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를 어찌! 마틸드, 그 목걸이는 싸구려 가짜였어요.”

진짜 인생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렇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지중지 여기고 평생을 벼 빠지게 노력하며 매여 살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란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다니는 진주가 대부분 모파상의 소설처럼 가짜는 아닐까. 가짜 진주는 오히려 진짜보다 더 화려하며 상들리에 불빛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일 것이다. 우리는 가짜 목걸이에 취해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며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님의 진주 목걸이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천상의 보물인 것이다. 이제 진짜 인생, 참된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자.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은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최재상 마티아 신부 | 창녕본당 주임



제 1 독 서 1열왕 3,5-6 7,7-12
화 답 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 2 독 서 로마 8,28-30
복 음 마태 13,44-52 또는 13,44-46

주일 진레

부끄러움을 장작삼아

박수영 베아트릭체 시인/ 가톨릭 문인회

나는 공짜를 참 좋아한다. 마트에 가면 시식을 거절한 적이 없고 샘플도 일단 받아온다. 그래서인지 몇 해 전 본당에서 오경필사노트를 나눠줬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온 후 허리디스크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봉헌하겠다고 필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만 미뤄도 몇 장이나 밀려서 진도를 따라잡기 힘들었고 아무리 적어도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속도에 점점 지쳐가다가 결국 필사노트는 책상 가운데에서 책장 끝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필사노트를 다시 꺼내게 된 과정에 대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나는 이 시기에 뭔가를 배우고 싶었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한국사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큰 별 최태성 선생님은 첫 시간에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젊음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물었고 선사시대 강의에서는 자연 앞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보려 했던 노력의 증거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때 ‘노력의 증거’라는 말에서(다소 엉뚱하지만) 6일 동안 쉬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노고가 떠올랐던 건 아무리 적어도 끝이 없는, 그렇다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필사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창세기여서 그랬을까?

그리고 고려시대 강의에서는 총 81,258장의 목판에 84,000개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긴 팔만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해인사로 옮길 때 삼 보에 한 번씩 절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어 그 정성에 감탄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필사노트에 대해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상생활과 접점이 없는 지역명과 쏟아지듯 나오는 이름들, 또 별도의 해설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항상 어렵다. 그렇다 해도 하느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기록하며 봉헌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위해 좀 더 애쓰고 좀 더 적응해보려 했던 노력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책장을 넘길수록 악필로 채워진 자리에 물까지 쏟아져 뒷장은 약간 찢어진 노트를 보며 ‘내가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던 말인가?’라는 부끄러움에 머리끝까지 폭 잠기는 시간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필사노트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곁에 두고 나의 부끄러움을 장작삼아 열심히 태우듯 매일 한 줄이라도 반듯하게 적어나간다면 언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알게 되고 친구를 위한 필사봉헌도 경건히 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정민의 다산독본: 파란 1, 2

격랑의 한 시대를 양가슴으로 부딪치며 살았던
다산에 관한 놀랍도록 낮은 이야기!

한쪽 어깨에 조선 천주교회의 역사가, 다른 쪽에는 정조 대왕의 꿈이 엮혔던 젊은 날 다산 정약용의 알려지지 않은 삶을 들여다보는 정민의 다산독본 「파란」. 청년 시절 18년, 강진 유배 18년, 해배 후 18년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인간 다산을 따라가 본다. 저자는 다산이 직접 쓴 글과 로마교황청 문서 그리고 조선 천주교 관련 연구 기록 세 가지 사료를 삶이라는 조명으로 비추고, 학술 영역에서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한 사람 생에서 절대적이고도 중요했을 주변 사건들을 통해 다산을 생생히 되살려냈다. 다산의 사람됨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작업 과정, 절망과 고통에 처한 인간의 고뇌와 상황 대처 능력, 사각지대에 놓인 자료의 발굴에서부터 그의 인간적 결점과 그들까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지은이: 정민



·지은이: 예수님의 성녀 데레사
·옮긴이: 최민순 신부

완덕의 길(다시 읽고 싶은 명작13)

시대를 초월한 기도 길잡이

「완덕의 길」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뛰어난 신비가인 예수의 성녀 데레사(1515~1582)가 남긴 글로, 성녀가 창립한 첫 개혁 가르멜(맨발 가르멜) 수도원인 성 요셉 수도원의 수녀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故 최민순 신부의 번역으로 1967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번에 '다시 읽고 싶은 명작 시리즈' 제13권으로 개정판(3판)이 나왔다.

본문은 전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도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덕행들(청빈, 순수한 사랑, 이타, 겸손 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기도의 길(구송기도와 묵상기도, 관상기도 등)과 단계를 설명한다. 특히 '주님의 기도'의 각 구절 풀이를 통해 기도의 여정과 악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가르친다.

기도로 신학하기 신학으로 기도하기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 왜 정성된 기도가 반드시 훌륭한 삶이나 빼어난 성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과연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 이 책은 구약성경 속 의인들이 바친 기도문들을 살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본다. 의인들의 기도 방식을 배우고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참모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지은이: 김영선 수녀

신학생이라는 이름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드래곤 길들이기, 영화, 2010

여기는 버크. 북쪽으로 12일 가면 나타나는 얼어붙은 희망처럼 추운 섬. 이곳 삶은 참담하고 참혹하다. 마을은 척박함 그 자체. 7대째 살아가고 있지만, 남아난 옛 건물이 거의 없다. 낚시, 사냥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지만, 석양의 풍경은 완전 최고다. 유일한 골칫거리는 빌어먹을 해충이다. 딱 대선 쥐나 모기가 해충이지만 이곳 해충은, 드래곤이다.

족장의 아들 히컵, 괴물조차 두려워할 바이킹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히컵은 영리한 반면 왜소하고 겁쟁입니다. 그도 용맹한 바이킹이 되고 싶습니다. 인정도 받고, 짝사랑 아스트리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강 드래곤인 나이트 퓨어리를 잡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땐 아버지가 나에게 바위에 박치기를 시켰고 난 무조건 복종했어. 난 바이킹의 실력을 갖고 닦았어. 태산을 쪼개고 숲을 밀고 바다를 길들이는!

아버지는 바이킹 싸수가 노란 히컵이 걱정이지만, 히컵은 자신이 고안한 밧줄작살로 어둠속 나이트 퓨어를 한방 멋지게 먹입니다. 그리고 숲을 뒤져 추락한 놈을 찾아냅니다.

드래곤, 너를 죽이고 심장을 꺼내 아빠한테 가져가겠어. 난 바이킹, 바이킹이란 말이야.

그러나 애처로운 놈의 눈빛을 본 히컵은 칼을 거두고 풀어줍니다. 죽이는 일은 못한다는 걸 깨달은 히컵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끼를 건내며 용 대적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 도끼를 지니면 바이킹 정신과 용맹을 지니는 거야. 바이킹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지. 더 이상 나약함이란 없는 거다. / 믿는다면 왜 이라는 건데요? / 어허, 얘기 끝났지? / 이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 끝났지? / ...끝. / 좋아. 열심히 연마해라.

다시 숲을 찾은 히컵은 꼬리날개가 부러져 날아가지 못한 나이트 퓨어를 발견합니다. 배고픈 용에게 물

고기를 건네고, 이빨이 없는겨?(투스리스toothless?)라고 외친 게 그 용의 이름이 됩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조심 밀고 당기기를 시작한 둘,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를 따라하며, 서로를 길들입니다. 히컵은 꼬리날개를 만들어 투스리스에게 달아줍니다. 자연날개가 아니라 히컵의 조종이 필요했고, 그렇게 둘은 한 팀이 되어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오늘은 아들이 바이킹이 되는 날, 진정한 바이킹 (one of us, 우리 중 하나)이 되는 날이다!

용 대적 훈련에서,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용을 잘 다뤄서 최고용사로 뽑힌 히컵은 이제, 아버지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용맹하게 용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심지어, 아버지가 선물한 자랑스런 바이킹 투구를 벗어던져 버립니다.

드래곤 학살을 끝낼 거야. 난 남들이랑 달라(I'm not one of them).



하지만 주변의 위협적 분위기에 겁을 먹은 용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히킵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투슬리스와의 관계도 들통납니다.

넌 놈들과 어울렸어. 넌 바이킹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와 바이킹들은 투슬리스를 볼모로 용들 소굴로 진격합니다. 아스트리드가 묻습니다.

숲에서 발견했을 때 왜 안 죽인 거니? / 난 겁쟁이고 약해빠져 못 죽인거지. / 용과 함께 날아오른 것도 최초지. 솔직히 말해봐. / 녀석이 나만큼 겁먹었기에 안 죽였어. / 지금도 네 친구가 무척 겁먹은 것 같던데. 어쩔 생각이야? / 아마 난, 멍청한 짓을 하겠지. / 멍청한 짓은 이미 했잖아. / 그럼, 미친 짓이라도 해야지? /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용들의 소굴에 쳐들어간 바이킹들, 그러나 조무래기 용들은 도망치고 어마무시 괴수용과 대빵마왕 용에게 혼쭐이 납니다. 이때 히킵과 또래들이 용을 타고 구하러 왔습니다.

자네가 낳은 아들 맞나? 완전 용감하잖아.

또래 대부분이 용 대적 훈련에선 낙방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괴수용을 잘 대적해 냅니다.

그거야! 너흰 바이킹이야!

도끼와 칼을 잘 휘두르지 못해도 진짜 바이킹이란 소리에 모두가 신이 납니다.

아들아, 사과할게. 그간의 일 모두. 그리고, 공중전은 위험해. / 위험하니까 바이킹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무사히 동네 사람들과, 괴수용에게 노예 살던 용들까지 모두 구해낸 히킵,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투슬리스가 곁에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 전체가, 바이킹과 용이 함께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늘 바라왔던 평화의 나라, 천국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이란 이름을 컬러풀하게

바이킹, 전통에 따른 교육 방식으로,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며, 원수인 용을 죽여야만 용맹하고 제대로 된 바이킹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마을과 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바이킹이란 이름에 걸맞은 하나의 틀이 존재해서,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면 성공, 못 맞추면 실패입니다. 바이킹이 세상을 길들인다는 것은, 정복하고 소유하며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바이킹, 유별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힘없고, 겁 많고, 죽일 줄 몰랐던 그가, 멍청한 짓, 미친 짓으로, 살리고, 친구 맺고, 목숨 걸고 용감히 뛰어들어 해방시켰습니다.

“넌 놈들과 어울렸어. 넌 바이킹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던 그가, “넌 우리와 다른 모두를 어울리게 했어. 넌 진정한 바이킹이다.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너는 너무 엉망이야”, “너는 숫기가 없어”, “그래서 신부 되겠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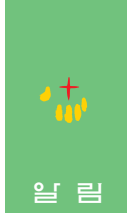
전통을 굳건히 지켜줄 신학생도 필요하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이해할 줄 아는 -세상 골치 거리를 최고로 탈바꿈시킬 줄 아는- 신학생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긴 버크섬이다. 9개월간 눈 오고 3개월간 우박이 떨어진다.

음식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맛도 거지같다. 이곳 사람들은 더 무뚝뚝하고 재미없다.

그래도 마음에 든다면 드래곤 때문.

딴 세상에선 말이랑 앵무새를 자랑한다지만, 여기선 당연, 드래곤이 최고다.



교구/본당

46차 창세기 연수

일시: 8월 16일(주일) 14:00~20:3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일시: 8월 21일(금) 16:00~23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2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서시몬(시몬) 신부
대상: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하고 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문의: 임기호 보니파시오 010·6245·4967
파견미사: 8월 23일(주일) 14:00

교리교사 하계피정

일시: 8월 22일(토) 14:00~23일(주일) 1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그리스도인의 돌봄 교육
주제성구: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 12,15)
대상: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신청: 8월 12일(수)까지 신청서, 참가비를 팩
스발송 및 입금(선착순 38명 마감)
참가비: 6만 원/ 교구 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마스크, 미사준비, 개인컵,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원활한 피정 준비를 위해 신청마감 준수
이번 피정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1인 1실 사용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시: 8월 24일(월) 09:30~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노인학교 봉사자, 노인사목관련 봉사자, 노인학교 담당 수도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교육비: 3만 원(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신청: 8월 14일(금)까지
계좌: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
※ 입금 시 '본당+노인학교'로 기입. (예-양덕노인학교)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봉사자 교육

일시: 하반기 - 8월 22일(토), 8월 23일(주일), 9월 6일(주일)
09:30~18:00 (총 3일)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인원: 선착순 20명
참가비: 6만 원(점심 포함)
신청: 7월 31일(금) 18:00까지,

Fax- 055·249·7029 또는 gasamok2@cathms.or.kr로 신청

계좌: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

※ 본당+참가자 실명으로 입금 (예-양덕동홍길동)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제17차 약혼자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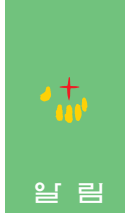
일시: 9월 4일(금) 19:30~6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2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교육비: 1인 14만 원(부부당 28만 원)
신청: 8월 9일(주일)까지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FAX- 055·249·7029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Advertisement grid containing: 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신세계피부비뇨기과, 더편한요양병원,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GCA 골프피팅 스튜디오, 마산 예경요양병원, 마산 예경병원.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성모승천 전례피정

일시: 8월 14일(금) 16:30~16일(주일)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19만 원[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기 타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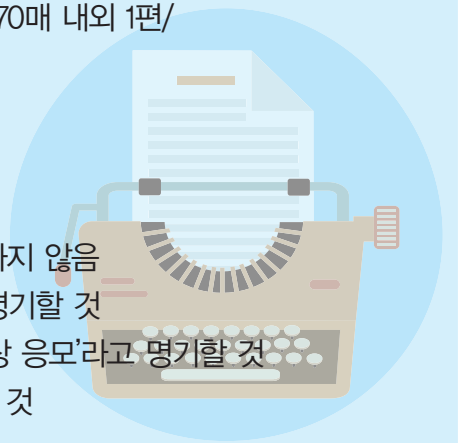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2020. 11. 2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8월 1일(토) 14:00	도심 속 침묵의 공간 (창원마음의 집)	010·2000·4131	침묵가운데 하느님만이 전부이고 싶은 미혼여성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영원한 청년, 윤동주의 <십자가>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에 살다가 28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시인이다.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기, 식민지 청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념을 지탱해 준 것은 집안 대대로 이어진 기독교 신앙이었다. <십자가>는 제목 그대로 그런 시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시이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십자가> -

그러나 이 시를 종교적 신앙이라는 액자에만 가두어둘 수는 없다. 이 시에는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고뇌하는 불안한 젊은이의 모습이 비쳐지고 있다. 다른 시 작품들에서, 그리고 그의 유고 시집의 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영혼의 순수함을 지향하였다.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하고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며 자신에게 엄격하였던 시인, 그래서 나는 이 젊은 시인의 세계를 ‘맑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티 하나 없이 가장 깨끗한 정신 세계를 추구하였던 것이 그의 삶이었지 않나 싶다.

오늘의 시 <십자가>에서 시인은 예수가 도달한 곳, ‘침탑’의 높은 세계를 지향하면서도, 감히 오를까 싶어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에 괴로워하면서,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롯이 자신을 바친 이가 예수이다. 그래서 예수는 ‘행복’하였고, 시인 역시 그러한 삶이 허락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피를 바치고자 다짐한다. 그것은 희생의 행위이기때,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하늘 아래 피어나는 그 피는 ‘꽃처럼’ 아름답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근원에 가까이 가 있을까. 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일상이 그 근원의 모습일까. 아 이같이 ‘맑고’, ‘가난한’ 마음을 얼마나 지니고 있을까. 신앙의 형식에 앞서서 약한 것을 사랑하고, 아픈 것에 눈물지은 것이 예수의 삶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동주는 아이처럼 어리고, 영원히 젊다. 이 땅에는 욕심과 허영심, 미움과 질시의 언어들이 널려 있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다니느라 헛되이 늙어 간다. 시인은 시 <병원>에서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참된 삶의 태도를 고뇌하고 성찰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여러 모로 복잡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별을 사랑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